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한 영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장시의 범주와 교수법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최 소 연

성장시의 범주와 교수법

한 영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최 소 연

인 준 서

최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기존의 성장 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성장시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학습자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는 성장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생활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 작품을 성장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장시 유형으로 분류되는 텍스트를 추출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7 교육과정은 '문학' 영역의 학습이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문학 교육을 통한 문학 체험이 학습자의 정체성 탐색과 형성을 도와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성장시는 미성숙한 자아가 성장 모티프를 통해 성숙한 자아를 갖게 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형상화한 시이다. 이처럼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삶의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성장시는 성장기의 학습자에게 크게 공명할 수 있어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갈래라는 점에서 2007 교육과정이 제시한 문학교육의 방향과 잘 부합한다.

하지만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생활국어」교과서 분석 결과 성장시 작품의 수가 많지 않았고, 성장시가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관점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장시의 내용이 학습자의 체험 영역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성장시 교수·학습은 성장시를 통해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친숙하게 접근하고 작품 속 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경험을 통해 자아 정체성 확립에 이를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성장시의 교수·학습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반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대화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이용하여 대표적 성장시라 할 수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해 보았다.

이외에도 성장시와 성장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하여 성장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시와 소설에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시에 대한 확장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과거의 체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자아 정체성 탐색을 내용으로 하는 성장시를 교육 제재로 하여 학습자의 공감을 획득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관적인 감상을 인정하는 교수·학습 상황이 조성될 때 시 교육을 통한 삶의 이해와 새로운 삶의 설계가 가능하리라는 전제를 본고는 그 의의로 한다.

핵심어: 문학 교육, 성장시, 대화 중심 교수·학습, 2007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분석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7

Ⅱ. 성장시의 범주와 주제 ····· 12
1. 성장시의 범주 ····· 12
2. 성장시의 주제의식 ····· 18
1) 시련 극복 의지 ····· 23
2) 사회적 자아의 수련 ····· 32
3) 숭고한 정신의 지향 ····· 39

Ⅲ. 성장시 교수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 45
1. 현 교수법의 문제점 ····· 46
1) 접근 방식의 구체성 결여 ····· 46
2) 어휘 분석 위주 ····· 56
2. 개선 방향 제안 ····· 64

1) 성장 소설과의 연계 ····· 65
2) 개별 창작시와의 소통 ····· 69

Ⅳ. 교수방법 구안의 실제 ····· 72

Ⅴ. 결론 ····· 86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성장시의 개념 ····· 14
<표2> 2007 교육과정 8학년 '문학' 영역 성취기준 ····· 18
<표3>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한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교과서 수록 현대시 작품 목록 ····· 20
<표4>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생활국어」교과서 수록 성장시 작품 목록 ····· 21
<표5> 금성(윤희원) 단원체계 ····· 46
<표6>「담쟁이」 학습과정 ····· 47
<표7> 대교(왕문용) 단원체계 ····· 49
<표8>「대추 한 알」 학습과정 ····· 50
<표9> 창비(김상욱) 단원체계 ····· 52
<표10> 「대추 한 알」 학습과정 ····· 53
<표11> 좋은책 단원체계 ····· 54
<표12>「폭풍」 학습과정 ····· 55
<표13> 지학사(이) 단원체계 ····· 56
<표14>「성탄제」 학습과정 ····· 57
<표15> 비상 단원체계 ····· 60
<표16>「낙화」 학습과정 ····· 61
<표17>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한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교과서 수록 성장소설 작품 목록 ····· 65
<표18> 대화중심 문학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 절차 ····· 72
<표19> 1차시 지도안 ····· 74
<표20> 2차시 지도안 ····· 79

<표21> 3차시 지도안 ····· 82

Ⅰ. 서 론

1. 연구 목적

청소년기에 놓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시도하며 익숙했던 유년기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낯선 성인 세계로 입문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자아 탐색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시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기준치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이어야 한다. 즉, 청소년 시기의 학습자에 적합한 시 교육은 학습자들의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내면 성찰과 건강한 자아의식 형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윤여탁(2002)은 현장에서의 문학 교육에 있어 학습되는 시 작품들이학습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실제 학습자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시의 내용이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현재 삶속의 체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생한다.

2007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행된 8학년 「국어」및 「생활국어」교과서에 실린 현대시 작품 총 145편 중 성장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은 총 11편으로 전체 작품 수의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더구나 10%에 해당하는 성장시 작품 중에서도 「국어」 교과서에서 소단원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은 불과 4편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작품의 경우 생활국어나 선택학습,

1) 선주원(2003), 『시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p. 12.

본문에 인용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2] 생활국어나 선택학습에 수록된 대부분의 단원이 수업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수업에서 다루어지더라도 내신 시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교육현장의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실상 문학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성장시는 매우 적다.

이를 통해 볼 때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한 8학년 「국어」및 「생활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 교육 제재는 학습자의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선정되었기 보다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작품이나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 작품 위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은 학습자들의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된 활동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거나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작품을 제재로 하여 시를 교육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직결될 수 있는 학습자와 유관성이 강한 시 제재를 제시해 줄 필요성을 부정하는 일 또한 교육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아닐 것이다.[3]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달성하거나 문학사적 평가가 높은 문학 작품은 교육적인 면에서는 의미를 지니지만, 시와 학습자의 내면세계를 연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습자들은 그러한 시들을 학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자신의 정신적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내면적인 것’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즉, 학습자들의 실제적 내면세계를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기능이 약화 되어 있다.”[4]

본고에서는 성장시의 구조 정리하고 성장의 순간 혹은 성장의 과정을 담고 있는 성장시가 학습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

---

2) <표4> 참고.
3) 남민우(2006), 『문학교육의 역사와 성장의 시학』, 역락, p.99.
4) 이미연(2008), 「성장 모티프를 활용한 성장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5.

려한다. 이에 시와 학습자 사이의 유관성을 강화하여 학습자의 내면 성찰과 자아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살펴 시 교육에 있어 성장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성장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시 「자화상」을 성장시의 틀로 해석하고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습 지도안을 구안해볼 것이다.

성장이라는 것은 한 주체가 더 나은 주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장의 의미를 다룬 작품들은 성장기에 놓인 주인공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 편입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가를 보여준다. 주인공과 같은 성장기의 학습자는 문학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작품 속 주인공에 대해 나름대로의 비판과 공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은 성장의 모티프를 담은 성장시가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근거가 된다.[5]

2007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영역 학습의 성격을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6]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향상하는 것이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러한 능력은 능동적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7 교육과정에서 문학작품의 이해와 창작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시 교육은 2007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학 교육의 방향과도 부합된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성장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

5) 위의 논문, p. 11.
6) 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주)미래 엔 컬쳐그룹, p. 16.

되 아직은 연구 성과가 미비한 성장시의 개념과 유형를 다시 정립하고자 한다. 그 후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15종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를 대상으로 성장시의 개념과 구조를 적용시키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제안함으로써 성장시의 문학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사 검토

시에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일는지도 모른다. '성장'이라는 것은 한 주체의 정신적 성장과정으로 "성장의 계기와 성장의 사건과 성장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성장의 이야기는 시간과 기억의 서사이다."[7] 그러나 시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순간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생의 단편적 에피소드', '영원한 현재' 등으로 정의된다. 서정시란 연속적이고 역사적인 또는 서사적인 시간에 항상 관심이 적은 것이 본질이다.[8] 따라서 한 편의 시는 성장의 계기에서 성장의 결과에 이르는 한 주체의 성장과정을 모두 보여주지 못한다.

비록 시에서 성장의 계기와 성장의 사건과 결과라는 인과적인 서사를 형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결정의 순간을 압축하는 속성을 통해 '성장의 계기'나 '성장의 결과'를 포착하여 드러낼 수 있으며 인과의 전모를 모두 담지는 못하더라도 한 개인의 생애를 절제된 형식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9] 때문에 시 교육의 영역에서 '성장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

7) 이광호(2011), 「아름답고 불가능한 성장의 시」, 『첫사랑 두근두근』, 문학과 지성사, p. 196.
8) 유진오(2006), 『시론』, 삼지원, pp. 119~132.
9) 이광호(2011), 「아름답고 불가능한 성장의 시」, 『첫사랑 두근두근』, 문학과 지성사, p. 196.

남민우(2003)[10]는 시 역시 소설 못지않게 개인의 정신적 각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성장의 시학'을 정립해야 함을 피력하고, '성장시'란 본능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존재가 인지 및 정서의 발달에 따라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가'라는 가족내적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시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형도, 이상, 윤동주의 시가 성장시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기형도의 「위험한 家系」를 본능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존재인 '나'가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가족이란 사회 단위 내에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성장시로, 이상의 「家庭」·「오감도 시제2호」·「肉親」를 가족이란 사회 단위 내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거부 의식을 형상화한 反성장의 시이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최초의 아버지가 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성장시로 볼 수 있으며, 윤동주의 「서시」·「간」을 이념적 동일시에 의한 성장시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교육적 의미를 찾았다. 남민우의 논문은 성장시의 개념을 설정하고 성장시의 구조와 문학교육적 의미를 밝혔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하나(2006)[11] 는 윤동주의 시를 성장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성장시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성장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장 모티프 중 세 가지 모티프에 주목하여 윤동주의 시를 성장시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아버지 찾기의 여정' 모티프를 통해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성장에 관한 태도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성과 사랑의 인식' 모티프를 통해 성숙의 아픔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길의 발견과 정체성 모색' 모티프를 통해 자기 정체성 찾기와 어른으로 나아가는 길 찾기의 과정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10) 남민우(2003), 「현대시교육과 성장시」, 『국어교육학연구』 vol. 16.
11) 김하나(2006), 「윤동주 시의 교수학습 연구—성장시의 관점에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규명하여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성장시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또 '사회화 측면', '자기화 측면', '인성교육 측면'에서 윤동주 시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사회화 측면'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의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민족과 개인 간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하고, '자기화 측면'에서는 반응중심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시인의 문제 해결 과정 및 의식 구조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인성 교육 측면' 에서는 직접적인 인성 교육 모형을 적용하여 자아정체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이육사와 함께 저항의 시인으로 인식되고 가르쳐졌던 윤동주의 시를 성장시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학습자가 윤동주의 시를 성장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성장시가 학습자의 정서적 선장과 인성 교육에 있어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미연(2008)[12]은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위한 시 교육 제재로 '성장시'를 꼽고 성장시를 학습자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시 장르로 규정하였다. 그는 성장시의 교수·학습 설계를 하기 위해 성장시를 '성장 결과로서의 성장시'와 '성장 과정으로서의 성장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성장시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을 활용하여 성장시의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현직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성장시가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내면 성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문학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는 제재임을 밝힌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근희(2010)[13]는 성장시를 기존의 미성숙한 화자나 시적 대상이 어떠한 통과제의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으로 성숙된 현재를 대변하고 있는 시라고

12) 이미연(2008), 「성장 모티프를 활용한 성장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김근희(2010), 「시치료 방법을 활용한 성장시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규정하고 성장시 교육이 학습자의 정서 순화, 바람직한 자아 형성과 같은 정서적 위안과 충만감 형성에 기여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그는 2007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문학 교과서 수록 시 제재들 중 8편을 선정하여 성장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그 중 이해인의 「나를 위로하는 날」과 정호승의「수선화에게」를 선정하여 5차원 독서치료법(ICOIA)를 변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아직은 낯선 시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문학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정서적 성숙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장시에 대한 연구는 '시'의 하위 갈래라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에 기대어 개념이 설정되어 있다. 성장소설과 성장시를 성장문학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함께 다룰 수도 있지만 성장소설과 달리 성장시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성장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성장시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설이 아닌 시에서 성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의 특수성을 살피고 성장시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연구사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문학사 및 문학교육사에서 성장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장시와 성장소설을 모두 포함하는 성장문학의 관점에서 기존의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시의 개념과 구조를 다시 정립하고자 한다.

성장소설에 대해 연구한 많은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성장

소설의 특징은 1) 이항대립의 구조를 갖는 다는 것, 2)1인칭 서술자가 주로 등장한다는 것, 3)성장기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다는 것, 4)열린 결말 구조를 취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장소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토대로 성장시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역시 소설 못지않게 개인의 자아 각성과 정신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갈래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성장소설과 대별되는 성장시의 범주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설 갈래가 아닌 시 갈래에서만 논의되는 성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의 의미를 성장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시를 통해 보다 성숙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때 성장시의 범주 설정의 당위성과 그 의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 소설이 이항대립의 구조를 갖는 것처럼 성장시 역시 이항대립의 구조를 갖는다. 이 때 성숙한 자아와 미성숙한 자아의 거리에 개입되는 시간성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자아는 과거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성장 과정과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처럼 성장의 이야기에는 '기억'과 '시간'이 개입된다.

모든 시가 순간의 감각만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시에도 소설과 같이 서술이 개입될 수 있다. 이 때 시에서의 서술과 소설에서의 서술의 차이는 시의 서술은 소설에서의 서술과 달리 원인과 결과의 전말을 드러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장소설과 달리 성장시에는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성숙한 자아의 깨달음과 통찰만을 제시해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는 성장소설을 읽을 때와 달리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유추해내어야 한다.

성장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과 성장시에는 미성숙한 존재가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계기적 사건으로서 성장모티프가 드러나게 된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한 8학년 「국어」·「생활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성장시에서 주체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각성의 계기로 작용하는 성장 모티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유년기를 벗어나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을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성장하는 경우. 둘째, 자신과 타인·집단·세계와의 관계 양상을 재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자아를 추구함으로써 성장하는 경우. 셋째,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추구해야 할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성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성장시에서는 성장소설과 같이 성장 모티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비유·상징 등의 기법을 통해 암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는 시어의 지시적인 의미를 토대로 시라는 의미의 장 안에서 시인이 부여한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해내야 한다. 미성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적 사건으로서의 성장모티프는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성장시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되든 반드시 시의 표면에 나타나야만 한다. 이와 같이 성장 소설이 아닌 성장시에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성장시 범주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고에서는 김근희(2010)에서 보여준 연구 성과를 이어 2007년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 및 「생활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 교육 제재를 성장시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그리고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 교육 제재가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 지는지를 2007 교육과정과 해당 시 교육 제재를 수록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성장시가 학습자의 내면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시[14]라는 점에서 성장시의 교수·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시 교수·학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섭렵(coverage)'과 '주해(exegesis)' 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두루두루 읽고 꼼꼼히 읽는다는 교육과정의 원칙 아래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 해석과 해석 사이에는 별다른 갈등과 논쟁이 없다. 섭렵과 주해를 통해 다양하고 상충된 견해들이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전망의 확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그 과정이 특정한 견해를 재생산하여 안정된 전통과 강요된 화해에 이르고 만다.[15]이와 같은 섭렵과 주해는 학습자를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독자로 머물게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상적 독자의 문학적 사유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시의 관점에서 분석한 「자화상」을 '대화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자를 위한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의 해석과 감상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이나 감상을 존중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모든 생각을 기준 없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문학능력을 중시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사고가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

14) 남민우(2006), p. 101
15) 정재찬(2006), 「현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19권, pp. 387~388.

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16]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독자의 내적 대화, 현실적 독자 간의 횡적 대화, 현실적 독자와 이상적 독자 사이의 종적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사고가 충돌·조정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문학작품 해석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길러주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대화를 통한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시 교육 제재를 감상의 대상으로 자기화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학적 견해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학적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은 독자의 지식·경험·가치관에 따라 문학작품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감상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해석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마련하며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는 2007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 방향과도 부합된다.

16)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pp. 291~292.

Ⅱ. 성장시의 범주와 주제

1. 성장시의 범주

1) 성장시의 개념 설정

성장시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구안하기에 앞서 성장시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성장소설의 경우 성장시보다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소설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살펴본 뒤, 성장시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성장소설이라는 용어는 교양 소설(Bildungsroman), 교육 소설(Eriziehungs roman), 보존 소설(Preservation Novel) 및 형성 소설(Novel of information), 그리고 입사 소설(Initiation story)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작품군들은 소년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세계의 주체로서 정립되는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17]에서 공통점이 있다.

교양소설은 미성숙한 젊은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과정을 다룬 소설로 자서전적인 양상을 띠는 소설로 19세기 독일 사회로부터 발생한 소설 유형의 하나이다. 교육 소설(Eriziehungs roman)은 교양 소설에 비해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보다는 교육이나 학교와 같은 외적 조건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목적성이 강한 경향이 있다. 영국의 보존 소설(Preservation Novel)과 형성 소설(Novel of information)은 교양 소설이나 교육 소설과 달리 개

17)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p. 241.

인의 문제나 내면화보다 사회로부터의 영향에 초점을 둔다. 입사소설(Initiation story)은 “사춘기의 소년이나 소녀가 죽음과 성 또는 선과 악의 도덕적 갈등, 그리고 미와 추, 자아와 같은 일련의 충격적 경험의 의미를 수용하면서 아울러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성숙되는가를 다룬 소설.”[18]이라 정의된다.

이와 같은 서구의 용어들을 바탕으로 한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19]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성장소설의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성장소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소설은 처음의 결핍·불완전·미숙이 결말의 충족·완전·성숙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처음과 끝의 대립구조는 어리고 미숙한 주인공이 겪는 탐색담, 입사담에 의해 완결된다.

둘째, 성장소설은 유년의 화자를 주인공으로 하며 성장한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유년 시절의 사건을 회고하는 방식을 많이 취한다. 따라서 성장소설의 서술자들은 대게 1인칭인 경우가 많으며 유년의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직접 이야기 하거나 성장한 성인 화자가 유년을 회고하는 고백적 태도 또는 회고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셋째, 성장소설은 개인의 전기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지 않는다. 성장소설은 인생의 전 과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미성숙한 인물이 성숙한 자아를 획득하게 되는 각성의 사건과 그 정황을 중시한다. 따라서 성장소설의 초점은 주인공이 내면적 성장을 통해 성숙한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인 성장기 한 부분에 맞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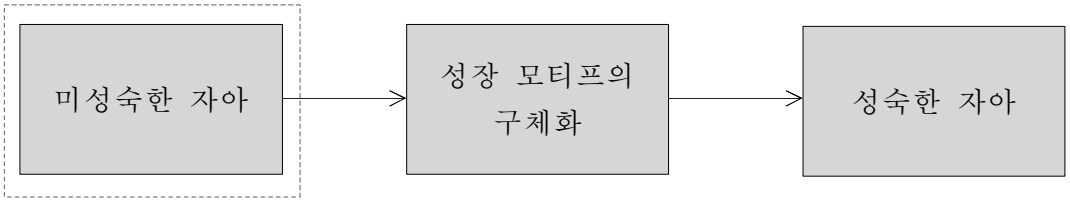
---

18) 이재선(1979), p. 471.
19)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p. 241.

넷째, 성장소설은 열린 결말 구조를 취한다. 결말에 이르는 과정은 기성 사회와 개인과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기성 사회가 갖고 있는 권력과 독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두 결말 구조 중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인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전자의 경우 인물이 수용, 화해, 타협의 자세를 취할 때 후자의 경우 비판, 대항의 자세를 취할 때 나타난다.[20]

본 연구에서는 성장 소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바탕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자아가 성장의 계기적인 사건이 되는 성장 모티프를 통해 기성 사회에 편입되거나 화해하는 방향으로 성숙한 자아를 갖게 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형상화한 시를 성장시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1> 성장시의 개념



<표1>은 성장시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미성숙한 자아', '성장 모티프의 구체화', '성숙한 자아' 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각 요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도록 한다.

20) 최현주(1999), 「한국 현대 성장 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전혜정(2004), 「성장소설 연구—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13 과 이미연(2008), 「성장 모티프를 활용한 성장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5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소설에 나타난 성장모티프를 재구성한 것이다.

(1) 미성숙한 자아

성장소설은 결핍·불완전·미숙이 결말의 충족·완전·성숙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장시 역시 미성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시는 소설과 달리 원인과 결과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 시는 생략과 압축의 문학이며 순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학이기 때문에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채 현재의 성숙한 자아만이 표면에 드러나 성숙의 결과 얻게 된 깨달음과 통찰을 이야기하는 성장시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성숙한 자아의 과거 미성숙했던 모습은 이항대립의 구조에 의해 드러난 현재의 성숙한 모습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다.[21] 인과적인 서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정의 순간을 압축하는 시라는 갈래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가 시의 기저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을 뿐이므로 시의 표면에 성숙한 자아만이 드러난다고 해서 성숙한 자아를 처음부터 성숙했던 존재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독자는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파악하며 현재의 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유추하며 작품을 읽어 나가야 한다.

남민우는 그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성인의 의식에 해당하는 주체를 '서술주체'로 본능적 차원에 갇힌 존재를 '시적 자아'로 구별[22]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용어를 중·고등학교 수준의 독자가 변별하여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의 결과 얻게 된 통찰과 깨달음을 말하는 성숙한 자아를 '서술하는 주체'로, 서술하는 주체에 의해 회고

---

21) 김근희(2010), p.12.

22) "서술주체는 상대적으로 성인적 의식의 주체에 해당하며, 이해 비해 시적 자아는 본능적 차원에 갇힌 존재에 해당한다." 남민우(2006) p. 117.

되는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서술된 주체'로 명명하고자 한다.

(2) 성장 모티프의 구체화

성장소설에서 어리고 미성숙한 주인공이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탐색담, 입사담이 개입된다. 성장시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미성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존재의 삶을 변하게 만드는 성장 모티프가 있어야 한다. 즉, 성장모티프는 미성숙한 존재가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는 계기적인 사건으로 일종의 통과제의라고 볼 수 있다.

통과제의라는 것은 통과제의를 거치게 될 대상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이며 인간이라는 씨앗을 성숙시켜서 완성시켜줄 어떤 상태의 시작을 일컫는다.[23] 따라서 미성숙한 존재가 성숙한 존재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하는 통과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때 통과의례 이후의 존재는 그 이전의 존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미성숙한 자아가 겪는 통과제의로서의 성장 모티프는 개별 작품의 주인공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이를 성장 모티프의 구체화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시는 현재의 응집된 정서를 나타내는 갈래이기 때문에 성장시에서는 성장 모티프가 성장소설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24] 시의 언어가 대상을 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유나 상징 등의 기법을 통해 돌려 말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장시에서 성장 모티프는 특정 개념을 환기하는 보조관념으로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는 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여 미성숙한 자아를 성숙한 자아로 발돋움하게 하는 성장의 모티프가 무엇인지를 유추해내야 한다.

---

23) 이미연(2008), p.6
24)김근희(2010), p.13.

성장시의 주인공은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성장하게 된다. 이 때 주인공이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어떤 양상을 띠는가에 따라 주인공은 자신이 속할 세계에 편입될 수도 있고 기성 세계에 반대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주인공을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적 사건으로서의 성장 모티프에 따라 성장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모티프는 성장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성장소설의 유형을 나누어 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성장시에서 주인공을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서의 성장모티프의 구체적 양상이 어떠한가를 근거로 성장시의 유형을 1)시련 극복 의지, 2)사회적 자아의 추구, 3)숭고한 정신의 지향으로 분류해 보았다.

(3) 성숙한 자아

성장이란 각 발달 단계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보다 앞서 통과제의를 거친 성숙한 존재와의 동일시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각성하고 점유한다. 이 경우 성숙한 자아는 기성사회에 순조롭게 편입된다.

하지만 성장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존재한다. 익숙한 세계와 결별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에 편입되기 위한 성장의 여정은 주체에게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유발한다. 따라서 주체는 기성 사회에의 편입을 거부하고 지배담론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려고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체는 세계와 화해를 함으로써 기성사회에 편입된다. 이러한 화해와 순응은 성숙에 비례하는 가치이다.[25] 본래 통과의례란 새로운 체재로 편입하기 위한 시험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26]이와 같은 성장시는 결국 기성사회와의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한편 일정 부분 기성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지배 문화에 대응한 새로운 가치 탐색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2. 성장시의 주제의식

앞서 정의내린 성장시의 개념과 특성을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한 8학년 15종 국어교과서에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국어」와 「생활국어」의 소단원에 수록된 작품 뿐 아니라 준비학습, 학습활동, 선택학습, 더 읽을거리 등에 수록된 작품과 작품의 일부만 인용된 경우 역시 포함하였으며 고전 시가와 노래 가사, 학생 작품, 세계 문학은 검토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07 국어과 교육과정 8학년'문학'영역의 성취기준과 교과서별 수록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2> 2007 교육과정 8학년 '문학'영역 성취기준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8-문학-(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작품에 표현된 형식적 구조의 아름다움 파악하기 ◦작품에 표현된 내용의 아름다움 파악하기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과 가치 인식하기

25)최은영(2009), 「성장소설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9. 재인용.
26)김민령(2001), 「한국 성장소설의 유형 연구」,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9.

【8-문학-(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독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기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 작품 감상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근거를 들어서 작품 해석하기
【8-문학-(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 특성 이해하기 ◦반어(아이러니)와 풍자의 특성 이해하기 ◦화자나 서술자의 특성과 주제의 연관성 이해하기
【8-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인물의 행동, 사고방식 이해하기 ◦인물의 행동과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짓기 ◦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계 파악하기
【8-문학-(5)】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익숙한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새로운 점 발견하기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인물의 삶 상상하기 ◦문학의 갈래를 선택하여 상상한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기

2007 교육과정 8학년 '문학'영역의 성취 기준은 크게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성장시와 접목이 가능한 항목으로 【8-문학-(2)】와 【8-문학-(3)】이 있다. 시에서는 시인 자신이 화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인이 화자에게 일정한 성격을 부여하고, 알맞은 표정과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시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그것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서술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내용이 달라진다.[27] 성장시는 성숙한 자아와 미성숙한 자아의 분리를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깨달은 통찰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작품들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27)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주)미래 엔 컬쳐그룹, p. 75.

<표3>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한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수록 현대시 작품 목록

출판사	수록 작품
교학사 (남미영)	산도화(박목월), 농부와 시인(김용택), 물방울 별(김용길), 하늘(서정슬), 이 바쁜 때 웬 설사(김용택),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살구꽃 지는 날(안도현)
금성 (윤희원)	풀꽃(나태주),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양성우), **담쟁이(도종환)**,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먼 후일(김소월), 담쟁이넝쿨(김진광), 우리 아빠 시골 갔다 오시면(김용택), 꽃보다 먼저(고은), 행복(유치환), 나의 출생(박경리), 우리말 사랑1(서정홍), 민들레와 개나리(서홍관)
대교 (박경신)	청노루(박목월), 사랑도 나무처럼(이해인), 청포도(이육사),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김영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산산산(신석정), 초토의 시(구상), 짧은 이야기(김용택),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최정례), 이럴 땐(임길택)
대교 (왕문용)	달밤(조지훈), **서시(윤동주)**, 달이 자꾸 따라와요(이상국), 청포도(이육사), 한 아이(천양희), **대추 한 알(장석주)**, 연분홍 송이송이(김억), 먼 후일(김소월), 강물과 나는(나태주), 그 꽃(고은), 섬(정현종)
디딤돌 (김종철)	산비(백석), 산 너머 저쪽(정지용), 묵화(김종삼), 접동새(김소월), 아지랑이(이영도), 풀잎(박성룡), 누런 똥(곽재구), 동서남북(김광규), 엄마 걱정(기형도), 풍선(이두현),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피아노(전봉건)
미래엔 컬처 (윤여탁)	이른 봄의 시(천양희), 내가 꽃으로 핀다면(오규원),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바다가 보이는 교실(정일근), **나(김광규)**, 만돌이(윤동주), 불국사(박목월), 먼 길(윤석중)
미래엔 컬처 (이남호)	산3(유치환), 저녁에(김광섭), **추수의 노래(박재삼)**, 산사꽃(서정주),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눈은 마당에 깃드는 꿈(황인숙), 엄마 걱정(기형도), 넉 점 반(윤석중), 책상과 화분과 꽃(오규원), 맨발(김기택), 네가 가던 그날은(김춘수), 앉은뱅이꽃(이형기)
비상 (조동길)	봄은 고양이로다(이장희), 묵화(김종삼),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눈온 아침(신경림), **낙화(이형기)**, 즐거운 편지(황동규), 파랑새(한하운), 재밌는 집 이름(권태응),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홍시를 보며(박재삼)**, 갈매기(천상병)

새롬 (권영민)	한 오큼(박목월), 복종(한용운), 빗방울 하나가5(강은교),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최두석), 고향(백석), 송사리(이문구), 짧은 이야기(김용택), 비린내라뇨!(함민복), 춘향 유문-춘향의 말3(서정주), 콩, 너는 죽었다(김용택), 풀잎(박성룡), 포도밭 도둑(안도현)
좋은책 (이숭원)	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 해바라기씨(정지용), **자화상(윤동주)**, 귀뚜라미(나희덕), **폭풍(정호승)**
지학사 (방민호)	반딧불(윤동주), 봉선화(김상옥), 사랑하는 별 하나(이성선), 그 새(홍성란), 청포도(이육사), 백화(백석), 풀잎(박성룡), 바다가 보이는 교실(정일근),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엄마 걱정(기형도), 단양 마늘(정기복), 장날(노천명), 사전(하종오)
지학사 (이용남)	보슬비(이성미), 모일(某日)(박목월), 수라(백석), 참!(김미혜),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정호승),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김영랑), 술래잡기(김종삼), 청노루(박목월), **성탄제(김종길)**
창비 (김상욱)	임의 노래(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김소월), 엄마 걱정(기형도), 말의 힘(황인숙), 민들레와 개나리(서홍관), 슬픔이 기쁨에게(정호승), **대추 한 알(장석주)**, 고백(고정희), 묘비명(김광규)
천재 (노미숙)	저녁 한때(임길택), **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환)**, 서시(윤동주), 똥지게(심호택), 사랑하는 까닭(한용운), 먼 후일(김소월), 닳지 않는 손(서정홍)
해냄 (오세영)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김영랑), 나무에 깃들여(정현종), 해바라기 얼굴(윤동주),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세상의 길가(김용택), 말의 힘(황인숙)

<표3>에 있는 작품들 중 앞서 정의한 성장시의 구성 요소를 충족하는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생활국어」교과서 수록 성장시 작품 목록

작품	출판사
담쟁이(도종환)	금성(윤희원): 8-1 1-(2) 소단원
대추 한 알(장석주)	◦ 대교(왕문용): 8-1 1-(1) 생활국어 ◦ 창비(김상욱): 8-1 1-선택활동 생활국어

추수(秋收)의 노래(박재삼)	미래엔컬처(이남호): 8-2 1-(2) 소단원
폭풍(정호승)	좋은책(이숭원): 8-2 1-단원 다지기
흔들리며 피는 꽃(정호승)	천재(노미숙): 8-1 2-(1) 소단원
성탄제(김종길)	지학사(이용남): 8-2 4-(1) 생활국어
서시(윤동주)	대교(왕문용): 8-1 1-(1) 생활국어
나(김광규)	미래엔컬처(윤여탁): 8-1 6-(2) 생활국어
홍시를 보며(박재삼)	비상(조동길): 8-2 1-선택학습
낙화(이형기)	비상(조동길): 8-2 4-(3) 본문에 인용
자화상(윤동주)	좋은책(이숭원): 8-2 2-(1) 소단원

앞서 설정한 성장시의 정의와 구조에 따라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생활국어」수록 현대시 작품들 중 총 11편을 성장시로 뽑아 보았다. 이들을 성장시로 볼 수 있는 까닭을 성장시의 개념과 구조에 대입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 따른 15개의 8학년 「국어」·「생활국어」교과서를 검토한 뒤 총 145편의 현대시 중에서 14편을 성장시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시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미성숙한 자아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인 성장모티프의 구체적인 양상을 들 수 있다.[28] 성장문학의 주인공은 반드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로서의 시련을 거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성장모티프는 성장문학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장시의 일관된 주제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기 정체성 탐색에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인 성장모티프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성장시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성장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시련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작품들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성장시들은 성숙해지

28) 인과의 전말을 압축하여 드러내는 시 갈래의 특성상 성장 모티프의 전후 양상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는 성장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장시의 유형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으로 성장 모티프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

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제의로서 '시련'을 상정하고, 이를 극복해 함으로써 형성된 성숙한 자아를 형상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자신과 집단 혹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 차원의 자아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이와 같은 성장시에서 미성숙한 자아는 세계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세 번째로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작품들이 있다.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을 발견하는 특징을 보인다.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생활국어」교과서 수록 성장시 작품 중 첫째, 시련 극복 의지를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다룬 작품으로는 「대추 한 알」·「추수의 노래」·「폭풍」·「흔들리며 피는 꽃 」·「낙화」가 있고 둘째, 사회적 자아를 추구를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다룬 작품으로는 「담쟁이」·「나」·「모일」·「성탄제」가 있으며 셋째, 숭고한 정신의 지향을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다룬 작품으로는 「서시」·「홍시를 보며」·「자화상」이 있다.

1) 시련 극복 의지

성장시는 유년기 수준에 머무는 미성숙한 자아가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다룬다. 유년기의 세계는 성인들의 보호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유년기의 인물은 세계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29] 이러한 환상에

29)김민령(2001), p. 8.

서 깨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인식하고 성인의 세계에 입문하는 과정에는 시련과 고통이 내재된다.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서 성숙한 자아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시련과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 미성숙한 자아의 의식은 성인들의 인식의 틀과 유사해지며 결국은 성인의 세계가 지니고 있는 규범을 받아들이게 된다.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제의로서 '시련'을 상정하고, 이를 극복해감으로써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성장시는 미성숙한 자아가 삶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시련과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인식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낱

붉고 둥글게 영근 대추 한 알에는 수 백 번의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초승달이 담겨있다고 서술하는 주체는 말하고 있다. 미성숙한 자아는 감추어진 채 성숙한 자아만이 표면에 드러나 수많은 고비와 시련을 견뎌내야 붉고 둥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삶의 역경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추수(秋收)의 노래

-박재삼-

풀과 나무들은
장마 속에 안스럽더니.
또한 뙤약볕에 한창 그을리드니.
바람에 머리칼 날리며
밤과 낮을 부지런히 맞고 보내며
그저 그런 듯 무심하게
이 세상에 널려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남몰래
열매속에 속살을 내보고 있었던가.

이파리 속에서

붉은 물 푸른 물을 보내고 있었던가.

아, 쉬임없이 그러고 있었던가.

이 가을 고개를 접어들면서

찬란하고 눈부신

보물을 보이나니.

풀과 나무는 장맛비를 부지런히 맞고, 뙤약볕에 한참 그을린 후에야 속살을 꽉 찬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장마' 와 '뙤약볕'으로 비유되는 여름날의 고통을 무심히도 견뎌낸 후에야 풀과 나무는 가을날 붉고 속이 꽉 찬 열매를 맺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열매를 서술하는 주체는 '찬란하고 눈부신/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름날의 장마와 뙤약볕을 견뎌낸 후에야 맺는 가을날의 열매는 그 시련과 고통의 크기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다. 한 주체가 더 나은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겪는 '장마', '뙤약볕'으로 비유되는 고통과 시련은 성숙의 결실을 맺기 위한 통과제의적인 경험인 셈이다.

폭풍

-정호승-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 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자연현상으로서의 '폭풍'은 인간이 지닌 모든 것을 앗아가는 파괴력을 지닌 존재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폭풍'을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의 시에서 서술하는 주체는 '폭풍'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폭풍'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에 맞서고 저항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 '폭풍'은 삶의 고통과 시련을 의미한다. 서술하는 주체는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한 송이 꽃이 되기를/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

다"고 함으로써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것에 정면으로 맞섰을 때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나무',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한 마리의 새' 와 같이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의 시적 대상인 '아름다운 꽃'(성숙한 자아)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성장 모티프의 구체화) 아름답게 꽃을 피운 존재이다. 처음부터

성숙한 상태의 '꽃'이었던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상태에 있던 꽃봉오리가 '바람'과 '비'로 비유되는 시련과 고통을 겪고 성장하여 성숙한 상태의 '꽃'이 된 것이다.

특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는 성숙한 존재의 깨달음은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위태롭고 모호한 시기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대추 한 알」·「추수의 노래」·「폭풍」·「흔들리며 피는 꽃」은 자연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아 표현했다는 점, 미성숙한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성숙한 자아만이 표면에 드러나 삶의 일부인 시련을 견뎌냈을 때 성숙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노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네 작품에 드러난 서술하는 주체는 삶의 고통과 시련, 절망과 실패를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인내와 극기의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물론 시적화자가 이와 같은 깨달음을 단 번에 얻은 것은 아닐 것이다. 삶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쓰러져 모난 자신을 점점 더 둥글게 다듬어 갔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고통과 절망이라는 삶의 극한 상황을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성숙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네 편의 시는 성장시로서 학습자에게 울리는 감동의 폭이 넓을 것이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낙화」의 서술하는 주체는 꽃이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깨달은 삶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1연에서 서술하는 주체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화'는 '이별', '죽음' 등의 이미지를 상기시켜 슬픔, 두려움, 거부감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술하는 주체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그 까닭은 4연에 나타나 있다. 봄 한철 만개했던 꽃이 지는 것은 여름의 성장과 가을의 결실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4연에서 서술주체가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까닭은 격정을 인내해야 했던 청춘의 시절이 지나감 역시 꽃이 떨어짐과 마찬가지로 성숙을 위한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성숙한 자아)를 지니게 됨으로써 서술하는 주체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하던 자신(미성숙한 자아)보다는 보다 자연스럽게 성숙의 아픔을 수용하게 되었다. 비록 그 성장의 아픔이 6연에 나타난 것처럼 내 눈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 해도 성숙의 아픔 역시 성숙을 위한 한 과정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낙화」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아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무성한 녹음과 열매를 위하여 봄철의 꽃이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서술주체는 성장을 위해 성숙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와의 결별을 고한다. 이 작품은 성장의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성숙의 고통을 성장을 위해 겪어야 하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습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자아의 수련

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를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숙한 자아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각성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되며 이것은 미성숙한 자아의 성장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한다.

사회적 정체성의 각성은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사회적 정체성의 각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는 미성숙한 자아로 하여금 유년기 시절의 제한된 세계에서 벗어나 성인 사회에 속하게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성인 사회 속에서 개인적 자아의 위치를 재조정하며 성숙한 인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3연을 참고할 때 위 시에 나타난 '벽'은 시련,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성장시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시에 나타난 '벽'은 미성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벽'이라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시적화자는 '어쩔 수 없다'며 절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 시적화자와 대조적으로 담쟁이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담쟁이는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맞선다. 3연과 4연에는 담쟁이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담쟁이는 다른 존재와의 연대와 화합을 통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한다.

시적화자는 담쟁이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물러서기 보다는 담쟁이처럼 다른 이와의 연대를 통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 미성숙한 과거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벽'앞에서 좌절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식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적화자의 성숙된 의식이 현재시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연대의식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이 시는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자아의 각성을 유도한다. 따라서 성장의 관점에서 해석한 「담쟁이」는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김광규-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나의 아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나의 누이의 오빠고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나의 조카의 아저씨고

나의 선생의 제자고/나의 제자의 선생이고

나의 나라의 납세자이고/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나의 친구의 친구고/나의 적의 적이고

나의 의사의 환자고/나의 단골 술집의 손님이고

나의 개의 주인이고/나의 집의 가장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아버지고

동생이고/형이고

남편이고/오빠고

조카고/아저씨고

제자고/선생이고

납세자고/예비군이고

친구고/적이고

환자고/손님이고

주인이고/가장이지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위 시에서 주목할 대목은 “과연/아무도 모르고 있는/나는 무엇인가//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나는 누구인가”이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시적화자는 사회적 정체성을 각성하지 못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주체인 ‘누구’로서 설 수 없고 ‘무엇’으로 대상화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또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시적화자는 사회적 정체성을 각성한 후에야 자기의 본래적 모습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살펴보면, 집단적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개인적 자아가 용인되지 않았었다.”[30] 이에 대해 시적화자는

‘사회적 자아’의 중요성을 말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모두 청산한 뒤에 남는 ‘개인적 자아’를 각성하는 일 역시 중요함을 설파하고 있다.

위 시는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고 성숙한 자아의 입을 빌려 “과연/아무도 모르고 있는/나는 무엇인가/그리고/지금 여기 있는/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 시적화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하나로 연결된 자아에로의 성숙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는 위의 시는 자신들에게 사회적 관습과 그에 갈등하며 정신적인 압박과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학습자들의 통합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성탄제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30) 남민우(2006), p. 102.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 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새 나도
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聖誕祭)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성탄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날이다. 누구나 한 가지 쯤은 성탄제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학습자의 일상적 경험과 시인의 특수한 경험 사이의 유관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다.

「성탄제」는 성탄제 무렵에 내리는 눈을 보며 성인이 된 서술하는 주체가 어린 시절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하는 시로 초반부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후반부의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이 대칭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 열병을 앓던 어린 시절의 서술된 주체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온 붉은 산수유 열매를 먹고 회생한다. 그리고 성인에 된 서술하는 주체는 "그날이 바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성탄제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한다."[31]

성인이 된 서술하는 주체가 아버지의 애정을 그리워하고 따뜻한 정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삭막한 도시에 아쉬움을 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옛 것이라곤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삭막한 도시에서 서술하는 주체는 어느덧 어린 시절의 그 날 아픈 자식을 위해 차가운 눈발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 온 아버지와 같은 서른 살이 되었다. 그것은 곧 어린 짐승과 같이 나약한 존재인 서술된 주체를 아버지가 회생시킨 것처럼 이제는 성인이 된 서술하는 주체가 자식을 보호하는 '아버지'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31) 이미연(2008), p. 41.

서술하는 주체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에게 새롭게 부여된 사회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삭막한 도시에서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성탄제」는 서술하는 주체인 '나'가 과거의 '어린 짐승'·'어린 목숨'과 같던 미성숙한 자아의 상태에서 벗어나 '아버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점유해야 한다는 각성 과정을 그린 성장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탄제」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수행함에 새로운 세계에 편입됨에 있어 '두려움, 불안감' 을 느끼는 학습자에게 공감을 획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내적 갈등이 인간의 성장에 있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숭고한 정신의 지향

시교육은 시라는 예술 창작품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혹은 감정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32]으로 한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에서는 문학의 기능을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33]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윤리의식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해주고, 그것의 실천을 도와준다.

---

32) 김종태(2005), 「시교육과 윤리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16집, p. 78.
33) 구인환 외(2003), 『문학-상』, 교학사, p. 42

특히 시는 압축적인 갈래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가치, 신념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시적 상황의 묘사, 함축적인 시어 등을 통해 보여준다.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위 시의 서술된 주체는 '하늘'이라는 자신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 아래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망한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란 '절대 선'인 '하늘'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지키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하는 서술된 주체의 이상과 달리 현실속의 서술된 주체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여기서 '잎새에 이는 바람'은 바람의 세기가 약하고 강함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잎새를 흔들 정도의 여린 바람 즉, 아주 작은 잘못조차 허락지 않았던 서술된 주체의 도덕적 결벽을 부각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4행에서 서술하는 주체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반성한다. 5~8행에서 서술하는 주체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다. 1~4행의 의미와 관련지어 볼 때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삶이 자신의 이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상을 계속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자아가 걸어가는 길 역시 평탄하지는 않다. '오늘 밤도 별을 스치우는 바람'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하는 서술하는 주체의 의지를 시련에 빠지게 만든다.

이 시에서 주목할 구절은 서술하는 주체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이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란, 도덕적으로 무결한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상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시는 도덕적으로 무결하고자 했던 서술하는 주체의 내면적인 고뇌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연한 의지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울리는 감동의 폭이 넓을 것이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한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위의 시에는 자아를 비춰보는 거울로써 '우물'이 등장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곳에 위치하는 이 '우물'은 자아와 만나기 위한 내적인 공간이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있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우물속의 세상은 자아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존재한다.[34]

그러나 곧 자아는 '우물속의 사나이'와 '사나이를 들여다보는 나'로 분리된

34) 김하나(2006), p. 25.

다. ‘사나이를 들여다보는 나’는 ‘우물속의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가 미워서 돌아간다. ‘우물 속 사나이’는 현실에 안주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으로 ‘사나이를 들여다보는 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순간 자기 혐오감을 갖게 된다. ‘사나이를 들여다보는 나’는 스스로에게 윤리적 결백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의 자신의 모습에 심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나이를 들여다보는 나’는 가다가 생각하니 그 미운 사나이가 가여워 돌아오고 또 그가 미워져 돌아갔다가 그 사나이가 그리워져 돌아온다. ‘우물속 사나이’에 대한 ‘미움’이 ‘가엾음’으로 또 ‘그리움’으로 변화하게 된다.

자기 성찰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미움’으로 ‘미움’의 감정에 의한 자기 연민이 ‘가엾음’으로 또 그 ‘가엾음’에 대한 감정이 ‘미움’으로 진행되다가 마침내는 미운 그 사내 역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데서 그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상적 자아가 지니는 현실적인 욕망과 이상적 자아가 지니는 윤리적 이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며 그 둘의 조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물이란 거울에 비친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부끄럽고 미운 자신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성숙을 통해 서술하는 주체는 우물 속의 세상을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있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사나이가 있는’ 공간으로 추억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시는 ‘자아가 분리되기 이전의 시적 자아(미성숙한 자아)→이상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적 자아→현상적 자아 역시 자신의 일부로 포용한 서술 주체가 과거의 갈등을 회상(성숙한 자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상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조화를 통해 보다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된 서술하는 주체의 성장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상적인 자아 완성에의 동경과 자기혐오라는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일성 획득을 통한 자기구원의 이면엔 보다 윤리적으로 고양된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성숙한 자아의 의지가 숨어있다.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입문하는 변화의 시기에 처한 학습자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에 빠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애증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인간적인 고뇌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 역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화해를 이룩하는데 이 시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성장시 교수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 성장시로 볼 수 있다고 선정한 작품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수·학습되어지는지 해당 시 교육 제재를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시는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과정에 있는 주인공이 겪는 삶의 체험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공감 획득과 자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갈래로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이 성장시가 갖는 교육적 가치가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학습활동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대부분의 성장시가 2007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성취기준 '【8-문학-(1)】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8-문학-(2)】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8-문법-(4)】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를 달성하기 위한 제재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성장시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제재들이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선 성장의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작품의 수용과 감상 측면, 시적 언어가 지니는 의미의 특성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이 갖는 문제점을 1)접근 방식의 구체성 결여, 2)어휘 분석 위주로 분류하여 보고 성장시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수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현 교수법의 문제점

1) 접근 방식의 구체성 결여

<표5> 금성(윤희원) 단원 체계

<table>
<tr><td colspan="6">1. 문학의 아름다움(영역 표시: 문학)</td></tr>
<tr><td rowspan="3">국어</td><td>(1)
문학의 이해</td><td>◦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 알기
◦문학 작품의 해석 및 평가의 다양성 이해하기</td><td rowspan="3">생활국어</td><td>선택학습</td><td>◦시와 수필의 내용과 형식의 아름다움 이해하기
◦문학 작품 이해의 다양성 알기</td></tr>
<tr><td>(2)
담쟁이</td><td>◦시의 아름다움과 가치 이해하기
◦문학 작품 해석의 다양성 알기</td><td>영역통합학습</td><td>◦시를 읽고 내용과 표현의 아름다움 느끼기
◦시를 읽고 감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td></tr>
<tr><td>(3)
마당을
나온 암탉</td><td>◦소설의 내용 면과 형식 면에서의 아름다움과 가치 알기
◦소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td><td>논술학습</td><td>◦소설 속 등장인물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 논술하기</td></tr>
</table>

금성(윤희원) 「국어」 교과서에서는 도종환의「담쟁이」를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대단원에 속한 소단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대단원 ‘문학의 아름다움’은 2007 교육과정 8학년 ‘문학’영역 성취기준 ‘【8-문학-(1)】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8-문학-(2)】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를 구현한 단원으로 문학 작품의 내용적·형식적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문학 작품의 가치 알기, 문학 작품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기르기 등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다.

소단원(2)에서는「담쟁이」를 대단원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제재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은 학습 단계를 제시하였다.

<표6> 「담쟁이」 학습 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과정		
1. 문학의 아름다움	(2) 담쟁이	준비 학습	담쟁이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여 보자	
		원리 학습	담쟁이 본문 제시	
		학습 활동	내용 다지기	◦'담쟁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이 시는 '우리'와 '담쟁이'를 비교하고 있다. '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응되는 '담쟁이'의 행동을 정리하여 써보자. 2. 이 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말하여 보자.
			목표 다잡기	◦'담쟁이'를 읽고 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을 하여보자. 1. 하고 싶은 말을 <보기>와 같이 직설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과 '담쟁이'처럼 시로 표현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생각하여 보자. 2. '담쟁이'의 의미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말하여 보자. (1)내가 극복해야 할 '벽'은 무엇인가? (2)그 '벽'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3)현재 나의 모습을 '담쟁이'의 모습과 비교하여 말해보자.
			생각 키우기	◦담쟁이를 소재로 한, 다음 시를 읽고 활동을 하여 보자. 1. 이 시에서 시인은 '담쟁이 넝쿨'을 보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는지 말하여 보자. 2. 다음은 우리 주변의 사물에서 시의 소재로 활용할 만한 것을 찾아본 것이다. 이 사물들의 특성을 세 가지 이상 써보자. 그리고 그 소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를 써 보자.

‘내용 다잡기’와 ‘목표 다잡기’의 2번 활동은 문학작품의 내용적 아름다움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문학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독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문학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학의 아름다움이자 가치이다. 「담쟁이」는 연대를 통한 시련의 극복이라는 주제의식을 통해 감동과 교훈을 주는 시이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시 「담쟁이」의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각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학작품의 내용이 주는 감동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습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해석에 앞서 「담쟁이」라는 시에서는 시련과 고통에 대응하는 담쟁이의 태도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유도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반응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목표 다잡기’의 1번 활동과 ‘생각키우기’에 제시된 활동은 문학적 표현이 갖는 아름다움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의 언어는 대상을 사전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은 대상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해석의 어려움을 주지만, 일상언어 보다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대상의 특성을 표현해낸다는 점에서 학습자는 시의 언어가 갖는 표현 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해당 대단원이 내용, 형식, 표현 면에서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학습자가 느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소단원에 제시된 학습 활동 역시 ‘내용’과 ‘형식·표현’면에서 균형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표7>대교(왕문용) 단원 체계

<table>
<tr><td colspan="3">1. 문학으로 만나는 세상</td><td colspan="3">1. 아름다운 문학 가치 있는 삶</td></tr>
<tr><td rowspan="3">국어</td><td>(1)달이 자꾸 따라와요</td><td rowspan="3">◦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td><td rowspan="2">생활국어</td><td>(1)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td><td rowspan="2">◦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이해한다.</td></tr>
<tr><td>(2)두꺼비 파리를 물고</td><td>(2)자서전 읽기와 쓰기</td></tr>
<tr><td>(3) 사랑 손님과 어머니</td><td></td></tr>
</table>

대교(왕문용) 교과서는 금성(윤희원) 교과서와 달리 「국어」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각기 다른 성취기준을 구현하고 양 교과서 간의 통합을 도모하는 특색을 보인다. <표7>에서 볼 수 있듯이「국어」교과서가 2007 교육과정 8학년 '문학'영역 성취기준 '[8-문학-(3)]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8-문학-(4)]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를 구현하고 있다면 「생활국어」교과서는 '문학'영역의 성취 기준 '[8-문학-(1)]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읽기'영역의 성취 기준 '[8-읽-4]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쓰기'교수·학습영역의 성취 기준 '[8-쓰-5]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를 구현하여 '문학', '읽기', '쓰기' 영역의 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교(왕문용) 「생활국어」 교과서에서는 「대추 한 알」을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제재로 사용하고 있다.

<표8>「대추 한 알」학습 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과정		
1. 아름다운 문학 가치 있는 삶	(1)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	활동 전에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표시해 보자.
		활동	활동 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생각하며 두 편의 시를 감상해 보자. -제재1: 천양희, 「한 아이」 -제재2: 장석주, 「대추 한 알」 1. 아름다운 시 문학상의 심사 위원이 되어 수상작을 선정한다고 가정하고, 두 시에서 각각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지 각자 적어 보자. 2. 친구들과 함께 수상작을 정한 다음, 선정한 이유를 정리해 보자. 3. (모둠활동)다음 예를 참고하여 상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발표해 보자.
			활동 2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살피며 다음 수필을 읽고 감상해 보자. -제재: 장영희, 「엄마의 눈물」 1. 다음과 같은 책의 제목을 인용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3.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감상을 다섯 글자로 써 보고,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

학습자는「국어」교과서를 통해 말하는 이와 작품이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달라짐을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은 학습을 마치고 난 학습자는「생활국어」 교과서를 통해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문학 작품 이해와 감상의 폭을 넓히게 된다.

「생활국어」교과서 소단원(1)은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단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 교육 제재로서 활동 1에서는 천양희의 「한 아이」, 장석주의 「대추 한 알」을 활동2에서는 장영희의 「엄마의 눈물」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성장시로 볼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 분석하였던 장석주의 「대추 한 알」을 교육 제재로서 활용하고 있는 '활동1'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 문학상의 심사 위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게 한 후 두 시중 무엇을 수상작으로 할지 정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를 심사 위원으로 상정하여 수상작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시 작품을 대상화 하지 않고 자기화하여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치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문학작품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시 교육 제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감상과 해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생각에 공감하는가?', '이 시에서 인상 깊은 표현은 무엇인가?', '이 시를 읽고 나서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대추 한 알」의 내용·형식·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한 뒤 수상작을 선정하는 학습활동이 이어졌다면, 학습자들은 문학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교 「생활국어」 교과서뿐 아니라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 「생활국어」 교과서도 「대추 한 알」을 교육 제재로 사용하고 있다. 창비 「생활국어」 교과서는 「대추 한 알」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수·학습되어지도록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표9>창비(김상욱) 단원체계

1. 문학의 아름다움					
국어	(1) 임의 노래	◦작품에 표현된 형식적 구조의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 표현된 내용의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다. ◦청중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발표 할 수 있다.	생활국어	(1) 작품의 아름다움과 만나기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2) 땔깜	◦독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 작품 감상이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다.		(2) 내가 만난 작품 소개하기	◦발표할 내용을 시각적 정보와 글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청중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다.

창비 「국어」교과서는 2007 교육과정 '문학'영역 성취기준 '【8-문학-(1)】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8-문학-(2)】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와 '말하기'영역 성취기준 '【8-말-(1)】 공식적인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발표한다.' 를 구현하여 '문학'영역과 '말하기'영역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생활국어」에 구현된 성취기준 역시 이와 동일하다. 창비 「생활국어」교과서는 「대추 한 알」을 '선택활동'에서 활용하고 있다.

<표10> 「대추 한 알」학습 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과정
1. 문학의 아름다움	선택 활동	◦다음 글을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제재: 「아낌없이 주는 나무」 1. 내가 소년이라면 나무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을지 적어 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써 보자. 2. 나무와 소년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주변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다음 예를 참고하여 말해 보자. 3. 나무와 소년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두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빈칸에 써 보자. ◦ 다음에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제재: 「대추 한 알」 1. 다음 예를 참고하여 이 시를 모방한 시를 써 보자. 2. 1번 활동에서 쓴 시를 친구들과 돌려 읽고, 한 편을 골라 보자. 3. 다음 보기에 제시된 매체를 활용하여 2번 활동에서 고른 시를 시화로 만들어 보자. 4. 만든 시화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자.

선택 활동이란 학생의 수준, 능력, 관심, 경험, 흥미 등과 글과 말, 매체의 특성과 종류, 난이도, 친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성한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 수준과 흥미·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창비 「생활국어」교과서에서 「대추 한 알」을 선택활동을 위한 제재로 다루었다는 것은 곧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대추 한 알」이 교육 제재로서 학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대추 한 알」을 패러디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몸소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문학작품을 창작해보도록 하고 있다. 「대추 한 알」을 패러디하기 위해 학습자는 '시'라는 갈래가 지니는 속성에 대해

주의 깊게 학습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라는 갈래가 주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택활동에 앞서 소단원(1)에서 시의 내용적 측면, 시적 표현과 운율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별 무리 없이 시의 아름다움을 살려 패러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1>좋은책 단원체계

<table>
<tr><td colspan="3">1. 함께, 다르게 읽기</td><td colspan="3">1. 함께, 깊이 읽기</td></tr>
<tr><td rowspan="3">국어</td><td>(1)자화상</td><td rowspan="3">◦독자에 따라 문학 작품의 감상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다.
◦문학 작품을 읽고 근거를 들어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한다.</td><td rowspan="2">생활국어</td><td>(1)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td><td rowspan="3">◦글에 나타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글의 사회·문화적 의
미를 해석한다.</td></tr>
<tr><td>(2)등산설</td><td>(2)
글을 통해 열리는 세상</td></tr>
<tr><td>(3)연어</td><td></td></tr>
</table>

좋은책에서는 「국어」교과서에 성취기준 '【8-문학-(2)】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를 구현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경험·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문학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무한정적인 인정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한 해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생활국어」교과서에는 성취기준 '【8-문학-(3)】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구현하여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학습자가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12> 「폭풍」학습 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과정	
1. 함께, 다르게 읽기	단원 다지기	학습 활동	◦다음은 폭풍을 맞이하는 자세를 노래한 시이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시를 감상해 보자. (1)이 시의 화자가 생각하는 폭풍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써 보자. (2)자신이 경험한 일 중 이 시의 '폭풍'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을 떠올려 보자. (3)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 시에 대한 감상을 발표해 보자.

좋은책 「국어」교과서에서는 소단원 학습을 마친 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보충학습을 하거나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단원다지기'에 「폭풍」을 수록하였다. '단원 다지기'에서 「폭풍」은 학습 목표에서 제시한 기본 수준을 다시 다지기 위한 활동을 위한 교육 제재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폭풍」이 학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단원 다지기'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통해 볼 때 좋은책 「국어」교과서에서는 「폭풍」의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1)을 통해 학습자는 성숙한 주체가 폭풍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삶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활동(2)를 통해 학습자는 이 시에서 '폭풍'이라는 시어가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의미함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학습자에게 매우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련의 고통을 나는 어떻게 극복해내었는지 성찰해봄으로써 학습자는 시 속의 서술하는 주체

가 지닌 성숙한 삶의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활동(3)은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지어 「폭풍」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1)(2)를 바탕으로 형성된 감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근거에 바탕을 둔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학습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해석에 앞서 「폭풍」이라는 시는 폭풍을 맞이하는 시적 화자의 자세에 초점을 맞춰 감상해야 한다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반응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어휘 분석 위주

<표13>지학사(이) 단원 체계

<table>
<tr><th colspan="6">4. 표현과 정보</th></tr>
<tr><td rowspan="3">국어</td><td>(1)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표현</td><td rowspan="3">◦나는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설명문을 쓸 수 있다.
◦나는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다.</td><td rowspan="3">생활국어</td><td>(1)
중의적 표현
모호한 표현</td><td rowspan="3">◦나는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설명문을 쓸 수 있다.
◦나는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다.</td></tr>
<tr><td>(2)
쪼개고 합쳐 설명문 쓰기</td><td>(2)
분석하는 설명문 쓰기</td></tr>
<tr><td>(3)
모으고 재구성해 기사문 쓰기</td><td>(3)
기사문 쓰기</td></tr>
</table>

지학사(이) 「국어」 교과서 4단원은 '【8-문법-(4)】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8-쓰기-(1)】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설명문을 쓴다.', '【8-쓰기-(2)】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사문을 작성한다.' 는 성취기준을 구현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의 소단원(1)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하나의 표현이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와 하나의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표현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이 효과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주제의 정확성을 헤치는지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소단원(2)·(3)과 같이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설명문과 기사문에서는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원리 학습을 바탕으로 「생활국어」 교과서에서는 소단원(1)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이 발생한 이유를 찾고 그러한 표현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소단원 (2)와 (3)에서는 각각 설명문과 기사문을 학습자가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14>「성탄제」 학습 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과정	
4. 표현과 정보	(1) 중의적 표현 모호한 표현	선택활동 1	1. 다음 문장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기' 처럼 빈 칸에 써 봅시다. (1)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여행한다. (2)친구들이 아지 간 오지 않았다. 2. 다음 문장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기'처럼 빈 칸에 써 봅시다. (1)돈이 많은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2)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선택활동 2	1.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있는 이야기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이 이야기에서 웃음을 짓게 하는 표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이러한 표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 봅시다. 2. 다음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한 대목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과 ㉡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이처럼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2)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표현이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구하는 설명문이나 기사문에서 이러한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될 지 말해 봅시다.
		선택활동 3	1. 다음 구절을 읽고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하여 적어 봅시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2. 이러한 표현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이유를 말해 봅시다. 3. 다음 시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제재: 성탄제(김종길)

「생활국어」교과서에서는 모호한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게 하기 위한 제재로 「성탄제」를
사용하고 있다. 「성탄제」의 한 구절인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란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 표현이 왜 모호한 표현이 되었는지 그 까닭을 살펴보고, 작가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활동을 구

안하고 있다.

소단원 (2)·(3)을 통해 학습자가 작성하게 될 설명문과 기사문에서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문학작품에서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모호한 표현'이라는 시의 언어가 갖는 특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활동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에 드러난 성장의 의미는 학습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어 수업을 통해 지도되는 성장시는 학습자의 체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습자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개인의 정신적 성숙은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만 일어나는 발달 과업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에서 성장시의 주인공이 반드시 유년기의 화자일 필요는 없다. 다만, 「성탄제」가 '아버지'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각성하는 서술하는 주체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8학년 학습자에게 얼마만큼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35]

서술하는 주체는 30세의 나이로 슬하에 자식을 두고 있는 가장이다. 8학년 학습자가 체험하는 경험의 장을 넘어서는 시적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학습자가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지니는 의무와 책임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태(2005)는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중년이 된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어려우며 따라서 이 시는 학생들에게 생경한 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36] 「성탄제」에서 '어린 짐승'으로 비유되는 서술된 주체는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학습자와 같은 지위를 지닌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

35) 김종태(2005), pp. 84~85.
36) 위의 논문, p. 84.

시는 미성숙한 자아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성장시이지만 서술하는 주체와 학습자 사이의 연령차이로 인하여 성장의 시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육하기보다 학습자에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교육제재로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15>비상 단원 체계

4. 일상에서 만난 모호함					
국어	(1) 알쏭달쏭 숨겨진 의미	◦상황 맥락에 따라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이 달라짐을 이해한다.	생활국어	(1) 상황맥락과 구성요소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를 알고,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2) 저 배를 보시오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바로 잡고,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		(2) 중의적표현과 모호한 표현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을 찾아 정확하게 고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한다.
	(3)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일상생활에서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찾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한다.			

비상 「국어」·「생활국어」4단원은 ‘【8-문법-(4)】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와 ‘【8-문법-(5)】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를 구현하였다.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이 발생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찾아내고 일상생활에서 중의적이거나 모

호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표16>「낙화」학습 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과정	
4. 일상에서 만난 모호함	(3)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며	다음은 국어사전에서 '미치다'의 뜻을 찾아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보자.
		파고들기	◦광고, 정확히 해석하자! 이 공익 광고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다음은 이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글을 읽고 이 광고의 표현 효과를 말해 보자. 2. 이 광고에 쓰인 언어 표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이 광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 시어의 의미가 뭘까? -제재: 낙화(이형기) 1. '현중이'가 시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보자. 2. 다음은 '현중이'가 시 '낙화'를 산문으로 바꾼 것이다. 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밑줄 친 '분분하게'의 의미를 사전의 뜻을 참고하여 말해 보자. 3. 시인이 시어의 뜻을 하나 이상으로 해석 되도록 시를 쓰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일기예보, 왜 이렇게 하지? 1. 이 일기 예보에서 밑줄 친 표현들의 공통점을 말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더 찾아서 정리해 보자. 2. 다음은 이 일기 예보에 사용된 밑줄 친 표현들을 바꾸어 본 것이다.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서 말해 보자.

비상 「국어」교과서 역시 지학사 「생활국어」교과서와 유사한 입장에서 시 제재를 활용했다. 「낙화」를 제재로 하여 시에 사용되는 모호한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구안하였다. 지학사 「생활국어」교과서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시'라는 제재와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설명문·기사문이라는 제재의 대비를 통해 시적 언어 분석을 하는 활동을 구안하였다면, 비상 「국어」교과서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문·일기예보와 같이 시 제재를 제시하여 시적 언어를 분석하는 활동을 구안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시 작품과 함께 구성된 글 제재의 유형이 다르다고 해도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이 발생한 이유를 찾고 그러한 표현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데 있다는 활동의 초점이 점에서 양 교과서에서 시 제재를 활용한 목적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 및 「생활국어」교과서가 시 교육 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교육 목표는 작품의 수용과 감상 측면, 시적 언어가 지니는 의미의 특성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품의 수용과 감상 측면의 활동은 '문학작품의 아름다움 느끼기', '문학작품의 가치 알기' 등과 같이 접근 방식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학작품을 통한 심미체험은 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37] 하지만 작품의 수용과 감상에 초점을 맞춘 교과서 학습활동은 작품의 형식적 아름다움이나 내용적 아름다움 중 한 측면에 치중한 분석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포

37)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주)미래 엔 컬쳐그룹, p. 73

괄적인 측면에서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파악하는 학습활동의 경우에도 작품의 주제를 찾아보는 정도의 활동을 구안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과 수용의 폭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시의 종합적 감상이 가능하도록 시의 감상 단계를 계열화하는 학습활동의 구안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의 종합적 감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감상의 순서를 계열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의 교수·학습 운용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자율적인 감상과 해석을 토대로 수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투입됨으로써 시의 의미를 구체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환경이 담보될 때,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조직화된 문학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적 언어가 지니는 의미 특성 측면의 활동은 시에 쓰인 모호한 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 위주로 학습자 활동이 구안되어 있다. 문학 교육이 문학의 본질에 충실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적 언어가 지니는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의미의 이중성에 초점을 맞춘 이와 같은 활동은 시가 지니고 있는 갈래적 특성에 근접한 활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언어적 측면에 중점을 둔 이와 같은 활동은 시가 언어적인 자율성을 띤 미적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물[38]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문학을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으로 정의할 경우, 시의 내용이 지니는 정신적 가치뿐 아니라 시가 지니고 있는 형식적 특성 역시 중요한 교육 대상이 된다. 시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여 시의 도구화를 초래해서도 안 되지만, 시의 형식 개념을 소홀히 하여 언어 예술로서 시가 지니는 가치를 간과

38)구인환외(2007)『문학교육론』, 삼지원, p. 238.

해서도 안 된다.[39] 따라서 시의 내용이 지니는 정신적인 가치와 시의 형식이 지니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이 구안되어야 한다.

2. 개선 방향 제안

성장시는 성장 과정에 있는 학습자의 정신세계, 내적 갈등의 특성을 공유한 주인공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은 성장 과정 중에 많은 갈등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성장시는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공감 획득 가능성이 높다.[40] 이처럼 성장시가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동기를 유발하는 좋은 교육 제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국어」 및 「생활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 작품은 성장의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장시가 학습자의 정체성 확립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제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생활국어」교과서에서는 성장시를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마련하지 않아 시를 통한 정체성 형성, 내면의 성숙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성장시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문학교육계의 인식과 연구가 부족해 성장시를 문학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성장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조망하고 성장의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성장시의 교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

39) 상계서, pp. 238~239.
40) 남민우(2006), p. 101.

1) 성장 소설과의 연계

성장문학으로서 '성장소설'과 '성장시'는 학습자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 제재이다. 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은 학습자의 공감획득과 동기유발에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어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쉽게 다가가고 또 즐겨 읽는 데 도움을 준다.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교과서 수록 성장소설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어」와 「생활국어」의 소단원에 수록된 작품 뿐 아니라 준비학습, 학습활동, 선택학습, 더 읽을거리 등에 수록된 작품과 작품의 일부만 인용된 경우 역시 포함하였으며 고전 소설과 학생 작품, 세계 문학은 검토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표17> 2007 교육과정에 근거한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교과서 수록 성장소설 작품 목록

작품	출판사
동백꽃(김유정)	◦ 교학(남): 8-1 1-(2) ◦ 디딤돌(김): 8-2 6-(1) ◦ 미래(이): 8-2 3-(2) ◦ 새롬: 8-1 2-(1) ◦ 금성(윤): 8-2 2 생활국어
소나기(황순원)	◦ 미래(윤): 8-1 1-(2) ◦ 좋은책: 8-1 1-(3) ◦ 대교(왕): 8-1 1-(2)
기억 속의 들꽃(윤흥길)	◦ 좋은책: 8-1 4-(1) ◦ 천재(노): 8-2 1-(1) ◦ 새롬: 2-1 4-(1) 생활국어
아홉 살 인생(위기철)	◦ 금성: 8-2 6-(3) ◦ 교학(남): 8-2 3-(1)
꽃신(김용익)	천재(노): 8-1 2-(2)

노새 두 마리(최일남)	미래(윤): 8-1 3-(2)
땔감(윤흥길)	창비: 8-1 1-(2)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금성: 8-1 1-(3)
생일 선물(박상률)	해냄: 8-1 6-(2)
연어(안도현)	좋은책: 8-2 1-(3)
열세 동무(노양근)	창비: 8-1 2-(1)
영수증(박태원)	미래(이): 8-1 6-(1)
이상한 선생님(채만식)	해냄: 8-2 1-(1)
일가(一家)(공선옥)	천재(노): 8-1 5-(1)
잃어버린 이름(김은국)	교학(남): 8-2 3-(1)
아우를 위하여(황석영)	◦미래(이): 8-2 5-(1) 생활국어 ◦금성(윤): 8-2 4 생활국어 ◦대교(박): 8-1 2-(1) 생활국어
검둥아 니는 아들이가 딸이가(유효진)	금성(윤): 8-1 4 생활국어
괭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금성(윤): 8-1 1 생활국어
나비를 잡는 아버지(현덕)	금성(윤): 8-1 1 생활국어
누나와 앵무새(이미애)	지학(방): 8-1 1-(1) 생활국어
생 레미에서, 희수(이금이)	미래(윤): 8-1 4-(3)
선생님의 밥그릇(이청준)	천재(노): 8-1 2-(1) 생활국어
야, 춘기야(김옥)	창비: 8-2 3-(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미래(윤): 8-2 5-(1) 생활국어
자전거 도둑(박완서)	새롬: 8-1 6-(1) 생활국어
중국인 거리(오정희)	미래(이): 8-1 6-더 읽어 보기 생활국어
흰 종이수염(하근찬)	미래(이): 8-1 6-(2) 생활국어

<표2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과서에서 적지 않은 비중으로 성장소설을 교육제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의 이야기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과 성장시의 비율 차이를 통해 볼 때, 문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성장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서사 작품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는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다. 짧은 글 속에 많은 내용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말 속에 많은 뜻이 숨어 있고, 짧고 간결하게 쓰인 글이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많은 내용의 뜻

이 담겨져 있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역시 소설 못지않게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갈래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성장시와 성장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성장'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깨달음을 확장하고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결국 미성숙한 주인공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계에서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내용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42]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습자와 문학 작품 간의 교감형성이 중요하다. 성장소설과 성장시를 통해 문학작품 속에 담긴 성장의 의미를 비교해보는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교육에서 역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학 속 성장의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성장시와 성장소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소설과 성장시가 주인공의 정체성 탐색과 내적인 성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게 한 후, 성장시와 성장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과정 형성화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성장시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가 가능해진다.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교과서에서 교육 제재로 사용하고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과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을 예로 들어 성장시와 성장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업의 시작은 「자화상」과 「자전거 도둑」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반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장시 교육의 목적이 자아 성찰과 내면세계의 성숙을 돕는데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교육 제재에 대한 학습자의 내적인 반응의 형성은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41) 이미연(2008), pp. 4~5.
42) 위의 논문, p.16.

되어야 한다.

윤동주의 「자화상」은 이상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통합을 통해 윤리적으로 고양된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시이다. '우물'이라는 자기 성찰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서술된 주체의 감정은 변화한다. 부끄러움이 '미움'으로 '미움'의 감정에 의한 자기 연민이 '가엾음'으로 또 그 '가엾음'에 대한 감정이 다시 '미움'으로 진행되다가 마침내는 미운 '그리움'으로 변하여 이상적인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통합에 이른다. 이는 우물이란 거울에 비친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부끄럽고 미운 자신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윤리적으로 고양된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박완서의「자전거 도둑」은 주인공 수남이가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남이는 xx상회 주인 영감과 신사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고맙게 생각했던 주인 영감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잊고 지내던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된다.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두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수남이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짐을 꾸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두 작품은 모두 순수한 양심과 도덕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거 '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술하는 주체와 수남이의 결단에 동의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가 교육 제재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감상하고 작품에 구현되어 있는 성장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작품이 지니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문학작품 속에 구현된 성장의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를 구성하였다면 이제 두 작품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성장시에 대한 심회된 이해에 도달하여야 한다. 성장의 이야기를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자화상」과 「자전거 도둑」은 서정과 서사라는 갈래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자화상」이 서술된 주체에 대해 서술하는 주체가 느끼는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자전거 도둑」은 수남이의 성장의 계기와 그 결과를 과거시제를 통해 표현하였다.

서정시는 시인이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순수한 현재는 하나의 행위에 관한 시간 의식을 간직하면서도 한 행위의 인상을 창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43] 이와 같이 서정시가 지니는 특성에 기인하여「자화상」에서는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서술하는 주체가 미성숙한 자아에게 느끼는 감정과 성장의 결과 얻게 된 통찰이 현재이 순간의 관점에서 진술되고 있다.

반면 서사는 인생의 사건을 줄거리를 가진 완결된 형태로 제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드러내준다. 「자전거 도둑」에서는 수남이가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형상화하여 수남이의 정신적 성장의 과정의 전말을 모두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성장시와 성장소설의 비교·대조를 통해 학습자는 시와 소설에서 다루는 성장 이야기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2) 개별 창작시와의 소통

자신의 성장의 과정을 담은 시 쓰기는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도울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현재 자신의 관점에서 과거의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성장기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평가내릴

43) 유진오(2006), pp. 119~131.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서 객관화함으로써 자신의 과거 체험이 갖는 진실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44]

따라서 정규 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시를 쓰는 것을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겪은 기성사회와의 갈등, 그로인한 내적인 상처와 불안 등을 쓰기 활동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자기 성찰과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성장시 쓰기를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청소년이 겪는 갈등과 혼란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문학교육은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통합교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문학이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전인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이며, 인간정신의 논리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45] 문학 교육이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합 교과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은 성장시 쓰기 활동이 문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방법임을 입증해준다. 성장시 쓰기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정체성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장과 바람직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07 교육과정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의 향상을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46]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문학작품의 해석

---

44) 자아의 이분, 그리고 그 분열이 주·객의 관계로 굴절을 통해 의미를 재합성하는 '대화'는 바흐친의 철학이나 문학이론의 최고기본단위이다. 즉 주체는 내부 속의 '나 아닌 것'과의 끊임없는 의사 소통을 통해 외부적 상황에 대응한다. 나와 내부 속의 나 아닌 것, 즉 '타자'와의 관계는 정적으로 분리된 상태로서 존재하지 않고 동적으로 부딪치는 '대화'의 관계이다. 즉 나의 의식이 타자에 의해 경험되어 현존하듯이 인간의 담화는 타인에 의해 경험되어 발산된다. 그리고 자아는 타인과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권택영(1990),『후기 구조주의 문학이론』, 민음사, 43-44쪽.

45) 우한용(1999),『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15.

활동과 문학작품의 생산 활동을 통해 길러진다고 본 것이다. 주인공이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을 담은 성장시를 이해하고 직접 성장시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2007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2007 교육과정에서 문학작품의 '창작'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생산'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것은 전문적인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시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학의 생활화'라는 관점에서 문학을 '문학'의 틀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지으려는 것이다. '문학의 생활화'란 문학을 읽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7]

우리의 삶에 있어 성장이란 특정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발달 과업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꾸준한 과정이다. 따라서 '문학의 생활화'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글쓰기로서의 성장시 쓰기는 문학교육과 학습자의 삶과의 연관성을 강화시켜 학습자의 문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북돋아줄 수 있으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학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

46) 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주)미래 엔 컬쳐그룹, p. 16.
47) 김대행(2001),「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문학교육학』제7호, 9-23쪽.

Ⅳ. 교수방법 구안의 실제

성장시의 교수·학습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학의 속성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나 작품에 대한 해석과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의 공감 획득을 바탕으로 한 내면의 성숙을 돕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시의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학생의 반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차원의 것이라 하더라도 시의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해석해 볼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인 독자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 탐색과 확립에 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적인 성숙의 과정을 형상화한 시 「자화상」의 교수방법을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고안해 보았다.

<표18>대화중심 문학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 절차[48]

문학에 관한 지식 이해하기
↓
문학작품 읽기 혹은 시 낭송하기
↓
<대화1>독자 개인의 내적 대화
↓
<대화2>독자와 독자들 간의 대화
↓
<대화3> 교사(전문가)와 독자의 대화
↓
시의 의미 정리하기

48) 최지현 외(2009), p. 311.

대화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의 반응을 중시하는 동시에 '교수'의 측면 또한 중시한다. 대화중심 교수·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상을 독려함과 동시에 수업을 주도해나가는 교사의 교수법을 학생의 학습 못지않게 중시한다.[49] 기존의 문학작품을 통한 성장 교육이 소설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적인 감상에 앞서 성장시와 관련된 문학적 지식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다양한 유형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점차 타당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중개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자화상」은 8학년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독자의 경험과 배경지식, 가치관에 따라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이해하고 근거를 들어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문학 작품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의 감상에 머물러 있는 현행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화상」을 성장기의 내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서술하는 주체의 내적인 성숙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시를 통한 성장의 의미를 학습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한다. 또 성장을 주제로 한 성장소설과 성장시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시의 문학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한다.

다음은 교수·학습 과정에 따라 수업의 차시를 구분하여 3차시의 수업 내용을 설계한 것이다.

49) 상계서, p. 294.

<표19>1차시 학습 지도안

단원명	윤동주 「자화상」	차시	1/3
학습 목표	1. 성장시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2. 「자화상」을 성장시의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학습 방법	대화 중심 교수·학습	학습 집단 조직	개인 학습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인사 및 출결 확인 ▷동기 유발 -성장 소설과 성장시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의미 깊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사건을 시기 별로 정리해 보고 변화의 모습을 간략하게 적어 본다. ▷학습 목표 확인 -ppt에 학습 목표를 띄운다.	▶주변 정돈 및 인사 ▶주의사항 경청 -주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그 사건의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당시의 상황과 느낌을 정리한다. ▶ppt를 보고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서사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정리하게 한다. -학습지 -ppt
전개	▷성장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해하기 -성장 소설의 개념 [미성숙한 주인공→성장의 계기→성숙한 주인공] -성장시의 개념 [미성숙한 자아→성장 모티프의 구체화→성숙한 자아] ▷성장시의 개념을 「자화상」과「흔들리며 피는	▶성장시와 성장소설이 미성숙에서 성숙에로의 이항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주인공의 성숙을 위해선 성숙의 계기적 사건인 성장 모티프가 필수적임을 이해한다. ▶성장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장시의 특성	-판서 및 학습지

	꽃」을 통해 설명 -7학년 때 학습한 시의 갈래적 특성에 대한 배경지식을 상기시킴 -시간을 압축하고, 현재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의 특성 상 성장시에서는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 -주관적인 묘사나 비유를 통해 대상을 표현하는 시의 특성상 성장시에서는 성장모티프가 보조관념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바람, 비 등의 시어가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화상」을 감상하도록 한다. -「자화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담은 시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자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떠올리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함. -성장시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 틀을 제공하고 그 틀을 채우면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함	을 이해 -성장 소설과 달리 미성숙한 자아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성장 소설과 달리 성장 모티프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남 ▶<대화1>독자 개인의 내적 대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화상」을 감상 -「자화상」에 나타난 성장시의 구성 요소를 학습지에 정리	-<대화3> 교사와 독자의 대화 -오독이 발생한 경우 수정 -그동안의 대화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 제기
정리	▷개인별로 학습지에 정리한 내용을 발표시킴	▶발표자는 큰 소리로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	-판서 및 학습지

	-발표 내용을 칠판에 기록 ▷수업 내용 정리 -성장 소설과 성장시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 -시의 갈래적 속성으로 인해 성장시에는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장 모티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과제 제시 -「자전거 도둑」을 감상하고 학습지를 완성하여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할 것 -수남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 -성장 소설의 개념이 「자전거 도둑」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주의하며 작품을 감상 -성장소설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 틀을 제시하고 그 틀을 채우며 감상할 것을 안내 ▷차시 예고 -과제물을 바탕으로 모둠별 토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과제를 반드시 해올 것 강조	은 경청 ▶학습 내용 정리 ▶주의 사항 경청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의미 깊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사건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고 변화의 모습을 간략하게 적어 보도록 하는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장'이란 주제에는 서사적인 시간의 흐름이 개입됨을 알게 하고 학습자의 경험과 시 제재를 연관시킴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단계의 활동은 성장시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성장시의 정의는 무엇인지, 성장소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7학년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시의 갈래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 때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학습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주어서 성장시의 감상과 이해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감상 과정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준거로서 이상적인 독자인 교사의 시범을 보여준다. 교사는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성장시를 읽는 방법을 안내한다. 그렇지만 교사의 안내와 시범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사의 설명은 학습자가 성장시를 읽고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해석의 방법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교사의 안내가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는 작품을 읽게 된다. 이 때, 서술하는 주체의 내적인 성숙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작품의 감상 과정을 계열화한 질문을 제공한다. 과거의 미성숙한 자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숙한 자아로 거듭났는지 자신에 대한 서술하는 주체의 감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 때 학습자의 내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가 질문을 제공하여 어떻게 문학적 사유를 해야 할지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미적 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화중심 교수·학습 비록 오독이라 할지라도 학습자의 해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대

화를 통해 점차 타당한 해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성장시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습자와 시 교육 제재와의 공감 형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학습자의 반응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성장시는 서술하는 주체의 정신적 성숙과 자아 정체성 탐색의 과정을 다룬 시이다. 따라서 성장시 교육은 서술하는 주체에 대한 이해와 서술하는 주체의 정체성 탐색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에 의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학습자가 자신이 감상하고 있는 시의 성숙한 자아가 겪은 정체성 탐색의 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내적인 대화는 작품 감상의 첫 번째 단계로 학습자는 작품의 내용에 대한 공감 혹은 비판을 통해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학습자의 해석을 존중하되, 학습자의 해석이 타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는 성장시 개념 구성 요소, 작품에 드러난 성숙의 과정 등에 대한 질문 목록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의 오독을 교정하고 보다 완결된 의미 구성을 위한 교사의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들에게 성장소설을 미리 읽어오도록 한다. 작품 감상 과정에서 학습자가 파악한 의미, 느낌, 미적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수업 전에 미리 작품을 읽어 오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비가 선행될 때 2차시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표20> 2차시 수업 지도안

단원명	윤동주 「자화상」	차시	2/3
학습 목표	1. 성장시와 성장소설의 특징을 비교하며 「자화상」과 「자전거 도둑」을 감상할 수 있다. 2.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작품 속 말하는 이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방법	대화 중심 교수·학습	학습 집단 조직	소집단 학습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인사 및 출결 확인	▶주변 정돈 및 인사	
	▷전시 학습 정리 -지난 학습 내용을 상기시키고 간략하게 정리	▶전시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복습	판서
	▷학습 목표 확인 -ppt에 학습 목표를 띄운다.	▶ppt를 보고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ppt
전개	▷과제 발표 -「자전거」도둑에 나타난 성장 소설의 특징을 발표 -발표 내용을 칠판에 판서	▶발표자는 큰 소리로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은 경청	-판서
	▷유의사항 안내 -「자화상」과 「자전거 도둑」에 나타난 성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화 나누기 -「자화상」과 「자전거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	▶<대화2>독자들 간의 대화	-<대화3> 교사와 독자의 대화 -모둠별 대화에서 오독이 발생한 경우 수정 -그동안의 대화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 제기

	이 있는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주인공들의 극복 방법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대화 나누기 -대화 내용은 학습지에 기록		-모둠원 간의 경쟁적인 대화 유도
정리	▷모둠별 발표 -발표 내용을 판서 ▷학습 내용 정리 -성장시와 성장 소설은 '성장'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시'라는 갈래의 속성상 성장시에는 성장소설과 달리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성장 모티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는 차이점이 다. ▷차시 예고 -성장시를 한 편 더 읽고 성장시의 유형에 대해 살펴 볼 것 -1차시 때 작성한 자신의 인생에서 인상 깊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직접 성장시를 지어볼 것	▶발표자는 큰 소리로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은 경청 ▶학습 내용 정리	

학습자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의 심화를 위해 동료학습자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동료학습자와의 대화는 내적 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근거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학습자 간의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학적 사유의 폭을 넓히고 좀 더 의미 있는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50]작품의 의미를 두고 동료학습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를 보다 타당하게 수정·보완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내적인 대화에서 놓쳤던 새로운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문학작품을 대하는 동료학습자들의 다양한 문학적 사유를 접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감상 수준은 심화된다.

내적 대화를 통해 이해한 작품의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끼리 공감하고 비판하는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습자는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작품에 형상화된 성숙한 자아의 통찰과 깨달음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시적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학습자 간의 대화는 문학적 사유의 심화 외에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개인의 정체성 탐색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유리되어 이루어져선 안 된다. 성장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기르고 그 안에서 자아를 획득한다고 해서 이전과 다르고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래 성장이란 새로운 체재로 편입하기 위한 시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51] 학습자간의 횡적인 대화는 학습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화 공동체에 수용될 만한 것인가를 검증 받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타당한 근거를 획득하여 심화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서 3차례에 걸친 대화는 문학작품 감상의 절차이자 수업의 절차이며 학습자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50) 최지현 외(2009), p. 296.
51) 김민령(2001), pp. 49~50.

과정과도 동일하다.

교사와 학습자 간의 종적인 대화는 시를 통한 의미를 구축하는 최종적인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 간의 대화에 개입하여 학습자들 사이의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학습자간의 대화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교정되지 않은 오독이 있다면 이를 타당한 해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사는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

<표21>3차시 수업 지도안

단원명	윤동주 「자화상」	차시	3/3
학습 목표	1. 성장시의 주제의식을 알고 분류할 수 있다. 2. 성장시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성장과정을 담은 시를 쓸 수 있다.		
학습 방법	대화 중심 교수·학습	학습 집단 조직	소집단 학습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인사 및 출결 확인 ▷전시 학습 정리 -지난 학습 내용을 상기시키고 간략하게 정리 ▷학습 목표 확인 -ppt에 학습 목표를 띄운다.	▶주변 정돈 및 인사 ▶전시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복습 ▶ppt를 보고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판서 ppt
전개	▷「담쟁이」감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쟁이」감상 -「흔들리며 피는 꽃」, 「자화상」, 「담쟁이」의	▶<대화 2>독자와 독자들 간의 대화	-<대화3> 교사와 독자의 대화 -모둠별 대화에서 오독이 발생한 경우 수정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모둠별 발표 -발표 후 성장시는 주제 의식에 따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정리 ▷성장시 쓰기 -1차시 때 작성한 자신의 인생에서 인상 깊었던 사건 중 하나를 선택해 성장시 쓰기 -성장시의 개념과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쓸 것	 ▶발표자는 큰 소리로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은 경청 ▶유의사항 경청 후 성장시 작성	-그동안의 대화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롭운 문제 제기 -모둠원 간의 경쟁적인 대화 유도 -순회 지도
정리	▷학습 내용 정리 -성장시의 개념과 특성 -성장소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성장시의 유형 ▷차시 예고		

1차시와 2차시에서는 성장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성장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학습을 하였다면 3차시에서는「흔들리며 피는 꽃」과 「담쟁이」를 상호텍스트로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장시를 학습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장시의 유형에 대한 이해는 성장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

움이 되고 정체성 탐색의 여러 면모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내면적인 성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화상 쓰기는 성장시에 대한 원리학습을 바탕으로 한 쓰기 활동이 중심이 되며 성장시를 통한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활동이다. 자화상 쓰기는 학습자가 자신을 성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교육을 통한 정서적 체험의 폭을 확대시켜준다.

성장시의 서술하는 주체는 과거의 삶에 대한 회고와 성찰을 통해 얻은 통찰과 깨달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통찰과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 시점의 서술하는 주체는 과거의 자신을 시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객관화 한다. 이와 같은 자기표현을 위해 성장시의 서술하는 주체는 과거의 자신을 표현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자의식을 필요로 한다. 타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서술하는 주체는 과거의 자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자기 체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52]

윤동주의 「자화상」은 서술하는 주체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이다. 「자화상」을 제재로 한 세 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 학습자는 서술하는 주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인식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자화상을 직접 시로 써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과거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그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52) 이순원(1999), 『19세』, 세계사, 7쪽.

이와 같은 글쓰기 결과를 평가자료로 삼음으로써 학습자가 성장시에 반영되어 있는 성장의 의미를 얼마나 내면화 하였는지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화라는 것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힘들지만, 학습자가 쓰는 성장시에는 성장시의 이해와 표현의 결과 얻어진 통찰과 깨달음 그리고 내적인 성숙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자화상 쓰기는 1차시에서 동기유발 과정에서 작성했던 자신의 삶에서 의미있었던 사건을 시기 별로 정리해 보고 전후 변화의 모습을 간략하게 적어보는 활동과 연계된다. 삶 속에서 인상 깊었던 사건과 그 사건을 전후로 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는 인과적인 시간의 흐름이 개입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성장의 서사를 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었던 계기와 그 결과를 모두 시로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제한된 길이 안에 성장의 서사를 담기 위해 자신의 생을 절제하여 드러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성장소설과 구별되는 성장시의 특성을 학습하게 된다.

평가는 대화의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평가와, 학습자가 창작한 성장시라는 쓰기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대화의 과정에서 교사가 전문적 중개인으로서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판단하고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종래의 양적 평가가 아닌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문학 수업의 역동성이 담보된다.

또 학습자가 창작한 성장시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의 준거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생각과 통찰을 진실 되게 표현했는가, 그 표현 방법이 시의 갈래적 특성에 적합한가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장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시의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정립하고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15종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를 대상으로 성장시의 개념과 구조를 적용시키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제안함으로써 성장시의 문학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2007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영역 학습의 성격을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53]고 규정하고 있다. 2007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문학 교육의 방향은 학습자의 정체성 탐색과 형성에 도움을 주는 성장시를 교육하고자 하는 본연구의 입장과도 부합된다.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성장시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양적으로 많지 않았고, 또 성장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관점에서 학습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성장시에 대한 인식의 미흡에 기인한다고 보고 성장 문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시의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한 뒤에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성장시의 효율적인 교수법을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의 연구를 선행하였다.

---

53) 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주)미래 엔 컬쳐그룹, p. 16.

첫째, 성장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성장시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성장시를 '미성숙한 상태의 자아가 성장의 계기적인 사건이 되는 성장 모티프를 통해 기성 사회에 편입되거나 화해하는 방향으로 성숙한 자아를 갖게 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형상화한 시' 라고 정의하고 2007 교육과정에 따른 8학년 15종 「국어」·「생활국어」교과서에 게재된 현대시 작품을 성장의 관점에서 선별하고 해석해 보았다.

둘째,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생활국어」에 수록된 성장시 작품을 바탕으로 성장시의 주제의식을 1)시련 극복 의지, 2)사회적 자아의 수련, 3)숭고한 정신의 지향으로 분류해 보았다. 성장 모티프의 구체적인 양상을 이와 같은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성장문학의 주인공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성장모티프는 성장문학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장시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의 학습목표, 글 제재, 학습 활동 등을 분석하여 성장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수·학습되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교과서 분석 결과 현 성장시 교수법이 갖는 문제를 1)접근방식의 결여 2)어휘 분석 위주로 나누어 보고 1)성장소설과의 연계, 2)개별 창작시와의 소통을 통한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의 중점적인 부분인 성장시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성장시 교육의 목적은 성장시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내면적 성숙이라는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꾀하는 데 있다. 성장시를 통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는 성장시가 학습자의 삶의 체험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학습자에게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공감을 획득하기 쉽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성장시를 통해 학습자가 자아를 성찰하고 내적인 성숙을 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가 성장시를 즐겨 접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시를 교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성장시를 즐기는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존중하는 대화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 학습자가 문학 체험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성장시 쓰기 활동을 제안해 보았다. 문학을 통한 삶의 총체적 이해와 문학의 생활화는 2007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학 교육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본고를 통해 새롭게 모색해 본 성장시 교수·학습 방법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성장시가 학습자의 내면적 성장을 돕는 제재임을 인식하고 기존의 우리 시 교육 현장이 반복해왔던 '섭렵(coverage)'과 '주해(exegesis)' 체제의 교육 방법을 극복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관적인 감상을 인정하는 교수·학습 상황이 조성될 때 성장시는 그 본래적 가치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장시가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성장시의 특성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주)미래 엔 컬쳐그룹.
교육과학기술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 (주)미래 엔 컬쳐그룹.
김상욱 외(2011), 『생활 국어 2-1』, 창작과 비평.
왕문용 외(2011), 『생활 국어 2-1』, 대교.
윤희원 외(2011), 『국어 2-1』, 금성.
이남호 외(2011), 『국어 2-2』, 미래엔컬처.
이숭원 외(2011), 『국어 2-2』, 좋은책 신사고.
이용남 외(2011), 『생활 국어 2-2』, 지학사.
윤여탁 외(2011), 『생활 국어 2-1』, 미래엔컬처.
조동길 외(2011), 『국어 2-2』, 비유와 상징.

2. 단행본

구인환 외(2003), 『문학-상』, 교학사.
구인환외(2007)『문학교육론』, 삼지원.
권택영(1990),『후기 구조주의 문학이론』, 민음사.
김열규(1989), 『한국문학사』, 탐구당.

김윤식(1973), 『사상계』, 사상계사.
남민우(2006), 『문학교육의 역사와 성장의 시학』, 역락.
선주원(2003), 『시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우한용(1999),『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진오(2006), 『시론』, 삼지원.
윤여탁 외(2002),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태학사.
이광호 외 (2011), 『첫사랑 두근두근』, 문학과 지성사.
이순원(1999), 『19세』, 세계사.
이재선(1979),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정운채(2006),『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푸른사상.
최지현 외(2009),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3. 학위논문

김근희(2010), 「시치료 방법을 활용한 성장시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령(2001), 「한국 성장소설의 유형 연구」,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하나(2006), 「윤동주 시의 교수학습 연구—성장시의 관점에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미영(1991),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미연(2008), 「성장 모티프를 활용한 성장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응경(2009), 「자기 성장 이야기 쓰기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혜정(2004), 「성장소설 연구—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최은영(2009), 「성장소설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현주(1999), 「한국 현대 성장 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함인자(2009),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게재된 성장소설의 인식과 그 문학교육 방안」,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일반논문 및 기타자료

김대행(2001),「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문학교육학』제7호,
남민우(2003), 「현대시교육과 성장시」,『국어교육학연구』vol. 16.
김종태(2005), 「시교육과 윤리의 문제」,『한국문예비평연구』제 16집
정재찬(2006), 「현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19권.
최현주(2005),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함의와 해석—고등학교 문학 교과서(18종)울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 연구』25호.

ABSTRACT

Category of initiation poem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Choe, So Yeon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eek the methods of pedagogy and learning of the initiation poem, which helps the learner's identity establishment. This thesis also aims to re-establish the scope of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about the existing development literature. For the above purpose and aim, this thesis criticizes the modern poem pieces in the 8th grade Korean and daily Korean text books according to 2007 education curriculum in a developmental view and reviews thus segregates the poems that is classified as initiation poems and provides the detail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2007 education curriculum says that the 'Literature' part of education must increas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human life through accepting and creating the literature pieces. This means that the experience through the literature education should help the identity formation of the learner thus eventually leading to the general understanding about life.

Initiation poem is a poem that formalizes the result and the process of having grown up identity through the developmental motives. The initiation poem goes well with the direction of the literature education that 2007 education posts because the initiation poem can make it feel big to the learners since it is a poem that contains the content about the life experience during the development and so it helps the identity formation of the learners.

But, accord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text books of 8th grade Korean and daily Korean that follows the 2007 education program, there are only few numbers of initiation poems, and even when there is a initiation poem, the teaching and learning is not done in the developmental point of view. Basing on the background that the content of initiation poem is almost the same to the experiential areas of the learner, the learning and teaching process of initiation poems must be done in a such way that the learners will approach the literature familiarly and will arrive at the self identity establishment through the experience of seeing one self in the world of literature.

Therefore in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initiation poems, the response of the learner must be prioritized. By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I have made the pedagogy of a representative initiation poem,

‘Ja-Hwa-Sang’ of Yoon, Dong Joo basing on the model that teaches and learns centering the conversation which encourages and acknowledges the subjective responses of the learner.

Aside from the above, I made the expanded understanding on the initiation poems possible by the process of comparing and analyzing how the formalizing the meaning of development by using the mutual text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tion poem and the developmental novel differs each at the poem and the novel. I also intended to help in forming the new identity and putting the meaning to the past experiences by letting the learners have the writing activity on the poems that contain their own development proces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hat upon receiving the sympathy of the learners by using the initiation poem that contains the identity search as the educational material and upon the situation is formed such that there is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earner and learning and teaching under respecting the subjective impression occurs, understanding life and planning of new life is possible by education.